

'오세훈 이후' 서울시장 후보 누가 거론되나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개표 요건인 투표율 33.3%를 넘지 못하고 무산됨에 따라 차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정국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가 내년 총선은 물론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선,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이 투표율 33.3%라는 구체적인 목표 수치까지 제시하며 시장직 사퇴를 결정한 점에서 결과에 즉각 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사퇴 시점이다. 오 시장이 즉각적인 사퇴를 한다면 오는 10·26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하지만 오 시장이 한나라당 등 여권의 만류를 받아들여 9월30일 이후에 사퇴한다면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정치권에서는 차차기 대선을 노리는 오 시장이 깨끗하게 결과에 승복하고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즉각적인 사퇴를 선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거론되는 등 크게 술렁이고 있다.

'준(準)대선급'인 서울시장 선거는 차기 총선을 앞두고 여론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단, 한나라당에서는 지난해 경선에서 오 시장과 승부를 벌였던 나경원 최고위원(중구)이 차기 후보로 가장 앞서 거명되고 있다. 나 최고위원이 최근 오 시장을 '계백'으로 지칭하면서 전적인 지원을 강조하고 나선



결과 승복 즉시 사퇴면 10·26 보궐선거 나경원·한명숙·박영선·박원순 등 유력

것을 두고서도 보궐선거 도전을 염두에 둔 포석이나 나경원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원희룡 최고위원(양천갑)은 서울시장 도전에 뜻이 없다고 하지만, 친이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유력 후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여권에서는 임태희 대통령 실장과 함께 정두언, 박진, 권영세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주민투표 무산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야권에서도 후보군들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단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오 시장에 석패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이름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정치자금법 수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데다 한 전 패배했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정책위의장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박영선 의원과 야권통합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이인영 최고위원도 유력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 서울 출마를 선언한 김효석 의원에게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권유가 이어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 이계안, 김한길 전 의원도 도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당 밖에서는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 이사로 유력 카드도 꼽히고 있다.

한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야권 단일후보 논의를 계기로 야권대통합 및 야권연대가 급물살을 탈 것인 지도 관심사다.

임태희 기자 tuim@kwangju.co.kr

박지원 "영남이 변화의 본때 보여주라"

부산서 특강...지역갈등 해소위해 총선 석패할 필요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24일 "대한민국이 한나라당의 분고장인 영남을 주시하고 있는 만큼 영남이 이번엔야말로 변화의 본때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최되는 '부울경 정치이카데미' 특강에 앞서 배포한 원고에서 "2012년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영남이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그는 "영남은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 타지역 출신 후보에게 다수표를 주지 않았으며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며 "이제 영남이 앞장서서 변화를 선택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원내대표는 또 "박정희(전) 대통령은 호남표로 당선됐으면서도 지역차별을 시작함으로써 오늘날까지 동서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의식도 바뀌고 법과 제도도 바뀌어야 동서갈등이 치유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뒤 "이런 의미에서 내년 총선에서 석패할 때도 동서갈등을 해소하는 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김대중·노무현" 세력의 진정한 통합이 민주당의 법통을 이어가고 동서갈등을 해소하



는 길"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퇴임 후인 2005년 동교동을 찾아 온 이병완 비서실장에게 '김대중 시대, 노무현 시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김대중 5년, 노무현 5년이 아니라 김·노시대 10년이라고 해야 성공한다'고 말씀했다"고 소개한 뒤 "저는 민주세력의 대통합에 헌신해서 내년에 기필코 국회와 정부를 다시 찾아오는데 밀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박지킴이 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 라운지

곽정숙, 성매매 전단지 신고 포상금

앞으로 각종 성매매 전단지를 배포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게 된다.

민주노동당 곽정숙(비례)의원은 지난해 대포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에는 '성매매 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과 포상금 지급기준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곽의원은 "포상금 지급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적극적 신고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됐다"며 "성매매 단속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률안은 지난해 광주시 '성매매 불법전단지 살포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통과된 것이어서, 시의 성매매 근절 노력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정책으로 발표하고도 2010년 대비 24.2%의 예산을 축소해 친환경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2012년에는 친환경농업예산을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

조호권,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 추진

광주시의회 조호권(민주·북구 5)의원이 오는 9월 열리는 제202회 임시회에서 '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조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각종 전문가 의견수렴, 간담회 등을 가졌다.

이 조례는 광주시가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전담기관을 설치·운영 또는 지정토록 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이 시설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이를 권장하도록 하고,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및 단체 등에서 생산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노인들의 복지향상 및 삶의 질 개선 뿐 아니라 건강과 빈곤 등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시 교단협, DJ 2주기 추모 예배

광주시 교단협의회와 민주당 광주시당은 24일 오후 7시30분부터 서구 상무2동 새밭교회에서 김대중 전대통령 서거 2주기 추모 예배를 갖는다.

이날 추모예배에는 이원재 목사 등 교단 관계자와 성도, 강운태 광주시장과 윤봉근 광주시의회위원장, 김영진 국회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당직자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권익 기자 cki@kwangju.co.kr

민주, 친환경농업성법 개정안 반대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이낙연 의원)과 전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김봉우)는 24일 최근 농림식품부에서 입법예고한 친환경농업성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전남도당과 농업인연합회는 성명에서 "외국의 인증기관이 인정한 제품을 국내 인증을 통과한 것과 같이 인정하는 이 법안의 동등성 조항 추진을 즉각 삭제하라"면서 "사전에 국내 친환경유기농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인증업무의 구축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녹색성장 운운하며 친환경농업을

민주 '공천 개혁안' 고민되네

의총서 전당원투표·국민경선 열띤 공방만

'공직 및 당직 후보 선출 개혁안'을 둘러싼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견과 반발로 좀처럼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다 개혁안이 야권통합과 야권연대 결과에 연동될 수밖에 없어 유통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23일 오후 열린 민주당 의총회의에서는 개혁특위

의 공직 및 당직 후보 선출 안을 놓고 의원들의 백가쟁명식 토론이 벌어졌다.

개혁특위의 핵심은 전당대회에서의 전당원투표제 도입, 공직 후보 선출시의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와 배심원제 도입 등이다.

하지만 이날 의총에서는 현실을 외면하고 개혁에만 초점을 맞춰 한나라당과 선명성 경쟁을 벌이듯 개혁안을

마련하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강력하게 제기됐다.

이날 의총에서 모 의원은 "차별화되고 획기적인 안면이 좋은 것은 아니다"며 "누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국민의 평가를 받느냐가 중요하며 특정 기준으로 잘라내기 방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천 혁신을 통한 '물갈이론'에 대한 현역 국회의원들의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

고 있다.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중앙당이 당원의 권리를 배려해줘야 한다. 당원들은 당이 어려울 때 담비를 내고 행사에도 참여하는데 공직선거에서 배제하면 당 권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고 말했다.

일부 지역구에 도입할 예정인 배심원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최인기 의원은 "배심원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다"며 "배심원이 지역의 실정을 모르는 데 어떻게 후보의 능력이나 지역 여론을 제대로 알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임태희 기자 tuim@kwangju.co.kr

부실채권(못 받은 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
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 못 받은 돈

- 선수금 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 수수료(회수 금액의 30% 이내)
-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여)
(아르바이트·시간제 가능·연령 무관)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광주·전남·전북 센터장 모집)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한신용정보|주|
062-232-7770, 010-4608-6061
(담당: 김정수)

사무실 임대
금남로 4가 구, 삼성생명 건물
구, 중앙교회 건너편

- 지하 1층~지상 6층
- 층별 107평 (분할가능)

병원, 학원 등
다양한
업종가능

대형주차장 완비

문의 062-953-5511
010-3617-8810

대한민국 최초! 음성채팅의 신기원
무료 음성커뮤니티

어디서나 24시간 100% 직접 통화됩니다.
직접화인(내선)이

진심입니다!
그동안 비싼 060 정보이용료나
고액의 회원가입비를 040만
사용할 수 있었던 음성채팅서비스!
이젠 무료로 제공됩니다.

정말 공짜입니다!
정보이용료도 무료! 가입비도
없습니다!
일반 전화요금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요금도 추가비용이
단 1원도 없이 그냥 일반전화요금입니다.

휴대폰만 사용 가능합니다.

1688-7958 남·여
공통사용

매니안남방 10번 보물보물방 01번
여행정보방 12번
연인만들기방 03번
음성 소설방 07번
1 : 1 대화방 15번

14년 전통 하트
가입문의 062-526-7958
전국 최저 요금제
여성무료 080-331-7958

365일 24시간 바쁘게 연결

소자본, 무점포,
고소득 ARS사업자 모집 010-3608-2888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 교육과학기술부(2010-1호)국가공인

| 구분 | 광주여자대학교(13기) | 광주교육대학교(제4기) |
|------------|--|--|
| 개강일시 | ·금요일 오전반:2011.9.2(금) 09:10(2,1급) ·오후반:2011.9.2(금) 14:10(3,2급) ·토요일 오전반:2011.9.3(토) 09:10(2,1급) | ·목요일 오전반:2011.9.8(목) 09:10(3,2급) ·오후반:2011.9.8(목) 14:10(1급) ·토요일 오전반:2011.9.10(토) 09:10(3,2급) ·오후반:2011.9.10(토) 14:10(특급) |
| 모집기간 | 2011.8.1(월)~9.3(토) | 2011.8.1(월)~9.10(토) |
| 수업기간 | 2011.9.2(금)~2012.2.11(토) (6개월 24주 96시간) | 2011.9.8(목)~2012.2.18(토) (6개월 24주 96시간) |
| 수업시간 |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오후반:14:10-18:00 | ·매주 목·토요일 오전반 09:10-13:00 ·오후반 14:10-18:00 |
| 수강료 | ₩34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 148-107-307803 | ₩340,000 (예금주:광주교대) ·우체국: 503557-01-005018 |
| 수료후특전 |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2급학교(법과 후 교육)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4급)취득기회 부여 | ·1, 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2급학교(법과 후 교육)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4급)취득기회 부여 |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 의 062)950-3582-4 ▶지도교수 011-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http://always.kwu.ac.kr | ▶문 의 062)520-4243 ▶지도교수 011-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http://www.gne.ac.kr/ |